

# 지역 연구 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 방향: 『탐라문화』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조성윤\*

1. 머리말
2. 연구기관의 조직화:  
탐라문화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
3. 제주학의 발전과 학술지
4. 『탐라문화』의 활성화 방향
5. 맺는말

##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한 지역학이 오늘날 어떤 위상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점검하려 한다. 특히 제주학이 단순한 지역 연구를 넘어서 지역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의 철학적 기반을 탐색하기 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우선 탐라문화연구소의 활동을 제주학회 등의 다른 연구 조직들과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학술지 『耽羅文化』의 그동안의 경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학술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들은 대부분 무속 연구, 향토사, 방언 연구 등의 인문학 분야에 집중되었다. 앞으로 사회과학 전반, 그리고 자연과학으로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서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단지 각 분야의 단순 집합이 아닌 진정한 지역학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제주학, 지역학, 탐라문화연구소, 학술지, 서평

## 1. 머리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뀌고, 지구화(globalization)로 국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 다국적기업, 초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다가 이제는 전 세계 규모의 자본과 지역 주민들이 곧바로 접촉하면서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민족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민을 결집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각 지역 단위의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세계화 정책이 전면화 되자, 국민국가적 통합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고 대신 지방 정부가 각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으려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여러 번 치렀고, 도지사과 시장도 뽑았다. 지방정부 책임자, 즉 도지사과 시장을 선거에 의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지역 발전 계획을 만들고 시행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 정부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지방 정부 간의 지나친 경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때문에 지역 개발의 속도도 빨라졌다. 지역 개발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전통

문화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 바로 지역 연구이다. 물론 지역학이라는 용어는 해외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국내의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지방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연구를 가리킨다.

오래 전부터 각 지역별로 전통문화, 역사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국문학, 민속학, 역사학 등 각 분야별로 분리된 채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각 학문 분야를 넘어서는 지역에 관한 학문 간의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제주학, 서울학, 부산학, 강원학 등으로 지역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짜여졌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충실히 반영하던 학계의 흐름에 맞서, 지역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다.<sup>1)</sup>

이 글은 새로운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지역 사회를 단위로 한 연구로서의 지역학이 오늘날 어떤 위상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점검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

#### 1) 제주학에 관해서는

신행철, 『제주사회연구의 전개와 과제』, 『濟州島研究』 제4집, 제주도연구회, 1987.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도서출판 한울, 1995.

이광규,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사회학적 측면』, 『탐라문화』 제3집, 1984.

장주근,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의 濟州島』, 『濟州島研究』 창간호, 제주도연구회, 1984.

유철인, 『지역연구와 제주학』,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서울학, 부산학, 강원학에 관해서는

안두순,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 안두순 편, 『서울학 연구 서설』,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김석준, 『지역학으로서 부산학』, 『부산학총서』 1,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3.

강원사회연구회 엮음, 『강원문화의 이해』, 한울, 2005을 볼 것.

요하지만, 여기서는 지역학 연구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학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제주학이 선두 주자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일찍부터 지역 단위 연구소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학회가 건설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교류 및 협력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 글의 초점은 단지 그 동안의 지역학 연구의 경험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변화를 담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데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대학교 부설 탐라문화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중심에 놓고, 제주학회 등 다른 연구 단체들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연구소 활동 가운데 학술지 『탐라문화(耽羅文化)』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 2. 연구기관의 조직화: 탐라문화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

제주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모여 조직한 기구는 1967년에 시작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와 1978년에 시작한 제주학회, 그리고 1998년에 시작한 제주학 연구소가 있다.

먼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위상부터 점검해 보자. 탐라문화 연구소는 제주대학교에서 지역의 사회문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이다. 탐라문화연구소는 1967년 3월 “제주도 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제 영역에 걸친 분야별 연구 및 분야 간 협동연구를 함으로써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분야의 학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부설 제주도문제연구소로 출발했으며,

1975년 6월 제주도문화연구소로 개칭되고, 다시 1976년 6월 탐라연구소로 개칭하여 오다가, 1981년 2월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라 탐라문화연구소로 개칭하면서 법정연구소로 인가되었다.<sup>2)</sup>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명칭을 바꾸고 법정연구소가 되고 1982년에 학술지 『탐라문화(耽羅文化)』를 창간한 것은 연구소가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됨을 알리는 계기였다. 연구소는 제주 지역의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범했고,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는 제주 무속, 제주 향토사였다. 그동안 탐라문화연구소는 주로 제주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국어학, 국문학, 역사학 등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었다. 당시로서는 이 연구소 이외의 다른 연구기관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탐라문화 연구소는 대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나아가서는 제주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까지는 아직 ‘제주학’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 제주도 내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일과 제주 향토사를 체계화하는 데 열의를 보이는 몇몇 학자들의 개별적 분산적인 연구 활동을 한 곳에 모아 놓는데 불과했다. 연구에 붙인 이름도 주로 제주방언, 제주무속, 제주향토사 등이 중심이었고, 제주학 또는 제주연구라는 명칭은 사용한 바 없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도 제주대학 내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 및 대학원생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편 1978년에 제주도 연구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사정을 전경수는 “1975년 가을 대구의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제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분들이 모여서 제주에 관

2) 연구소 연혁은 『耽羅文化』 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부록 241쪽.

한 연구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기초로 1978년 봄, 민속학, 국문학, 고고학, 인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모여서 제주도연구회를 창립했다”<sup>3)</sup>고 밝힌 바 있다. 그때부터 소규모의 연구발표회가 시작되었다. 이들이 제주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주목할 만하다. “당시 연구회를 창립했던 주역들이 주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자들이었던 점이 암시하듯이 이들에게 제주도는 연구 지역으로서 寶庫이자, 표본 사회로서의 (인문 사회 분야의) 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그것이 연구회가 결성된 主이유였다”<sup>4)</sup>고 밝혔듯이, 제주도 출신이거나 제주도에 거주하는 학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학자들이 스스로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지역 연구 대상으로서 제주도는 가장 매력적인 표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위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진정한 ‘제주학’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회는 어디까지나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류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일부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들도 참여하였지만, 이는 일부에 그쳤을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제주도 연구회 창립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지역의 연구자들을 회원으로 만들어 갔으며,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문호를 넓혔다. 그 결과 1984년 전국대회를 갖고, 1985년부터 학술지 『제주도연구』를 발간하면서 제주도연구회는 크게 달라졌다. 제주도연구회는 서울과 제주지역 연구자들이 사무국을 번갈아 맡으면서 매우 활발하

3) 전경수, 『濟州學: 왜 어떻게 할 것인가?』, 『濟州島研究』 제14집, 제주도연구회, 1997.

4) 윗글, 같은 곳.

게 활동했다. 해마다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열고, 때때로 월례 발표회도 가지면서 상호 학술 교류를 증진시켜갔다. 그리고 1995년 명칭을 ‘제주도 연구회’에서 ‘제주학회로 바꾸면서 그야말로 ‘제주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다.<sup>5)</sup>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도 연구자들이 서울과 지방을 망라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모임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제주 지역에 관한 연구 활동이 제주대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지역 연구를 인문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 학자들까지 참여하는 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회로 만들어 갔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한반도와 크게 다른 화산섬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들 중에서는 제주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학자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이들이 서로의 연구 성과를 교류할 기회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인문 사회과학 전공자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기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학회의 발표회장에서는 이러한 발표와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단순히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는 장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연구를 하나의 통합 학문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연구는 전통적 분과 체제에서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어 가는 지식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이고 분과적 통합을 지향”<sup>6)</sup>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

5) 유철인, 『지역연구와 제주학』,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6) 김석준, 『지역학으로서 부산학』, 『부산학총서』 창간호,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17쪽.

제로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학회를 통해서 만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주도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학제적 연구와 보편과학의 달성을 위해서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제주학 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었다.

한편 제주도내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1998년 학술지 『제주학』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고창석, 강영봉, 오창명, 고광민 등의 제주 역사, 언어, 민속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이 연구소는 마을 단위 현장 조사 작업을 통해서 제주학을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sup>7)</sup>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제주대학교 부설 연구소인 탐라문화연구소와 전국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느슨한 형태로 참여하는 제주학회와는 달리, 제주도 내에서 오래 동안 제주 민속, 언어, 역사 연구에 종사하던 학자들이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조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탐라문화연구소의 위상은 위축되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제주 문화의 연구기관이라는 위상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점차 제주대학교 학내 교수들이 제주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주도로부터 받아 수행하거나, 탐라문화를 1년에 한 차례 발간하는 수준의 평범한 연구소로 남는 데 그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학 내의 사회과학 연구소들이 생겨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빠져나가고, 상당수 연구자들이 제주학회 활동에 힘

7) 『濟州學』 창간호(1998 여름)의 卷頭言.



을 쏟으면서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 당국의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점도 크게 작용했다. 특히 연구와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연구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던 조교 자리를 없애고, 무급의 연구 조교로 대체해 버리면서 기본적인 운영 자체도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정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우선 제주도 연구회가 제주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계속 활동하고 있었지만, 점차 그 위상이 약해지게 되었다. 우선 제주학회를 담당하는 회장단의 활동이 약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학회 운영진과 제주도연구 편집진이 제대로 꾸려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책임을 맡았던 담당자들도 자주 교체되면서 표류하고 말았다. 연구 테마도 제주도 사회문화에 관한 순수 학술적인 주제가 줄어들고 대부분 현실적인 주제 제주도 당국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구자들의 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sup>8)</sup> 현재는 학술지 『제주도 연구』의 발간도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 탐라문화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공모과제 연구,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공모 사업 등에서 잇달아 선정되면서 연구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동시에 기관지 『탐라문화』가 꾸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가 되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도 제주대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확보되면서 연구자의 폭도 넓어졌다. 한편으로는 2000년대 들어 새로 설립된 제주대학교 대

8) 2006년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학문적 성찰”라는 주제의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와 2007년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이라는 주제의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주된 경향은 기존의 인문학적인 분위기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된 제주도의 정치, 행정, 경제 발전과 관련된 실용적인 측면으로 흐르는 것이었다.

학원의 한국학 협동과정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후속 세대 양성이 시작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다면 현재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학 연구의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탐라문화연구소의 변화 방향에 관해 논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학술지 『탐라문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 3. 제주학의 발전과 학술지

오래 동안 제주학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 제주학회와 탐라문화연구소이지만, 양자는 서로의 조직 방식과 역할이 달랐다. 학회가 비교적 자유로운 개별 연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상호 교류의 장으로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연구소는 일정한 목표를 제시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를 조직해서 연구 팀을 가동하면서 하나의 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기에 훨씬 더 유리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두 조직의 학술활동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제주학회의 『제주도연구』와 탐라문화 연구소의 『탐라문화』에 실린 논문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제주학 정립의 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분류 기준은 먼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고, 인문학은 언어, 문학, 민속, 역사로 구분하였다. 사회과학은 사회, 지리와 산업·관광·개발 분야를 하나로 묶어 구분하였다. 자연과학은 농업, 동식물, 해양 지질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

었다. 왜냐하면 구비문학과 관련된 논문 상당수는 민속, 또는 역사와 깊이 관련이 있었으며, 언어 영역으로 구분한 논문 상당수도 역사와 관련이 있었다. 사회, 또는 지리 분야와 관련 있는 논문이지만, 역사적인 주제를 다룬 것은 역사 논문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두 분야 또는 세 분야에 걸친, 이른바 복합학적 성격을 갖는 논문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중간쯤으로 볼 수 있거나, 아예 양자의 이론과 방법론을 복합한 논문들도 상당수 있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여러 분야에 걸친, 그리고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논문들이야말로 제주학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가 제주학이라는 하나로 학문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논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논문들의 수록 시기를 크게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3시기로 나누었는데, 여기서는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편의상 『제주도 연구』는 1집~10집, 11집~20집, 21집~26집으로, 『탐라문화』는 1~10집, 11~20집, 21집~32집으로 나누었다. 세 시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다.

『제주도연구』는 1984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권씩 간행하다가, 『탐라문화』보다 이른 2000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간행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아쉽게도 2004년도 26호 이후에는 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연구』에 26집까지 실린 논문은 모두 266편이다. 여기서 자료 소개, 해제 등 논문이 아닌 것은 제외하였다.

〈표 1〉 『제주도연구』 수록 논문의 경향 변화

분류	논문	1-10집		11-20집		21-26집		합계	
			%		%		%		%
인문학	일반	1	0.7	3	4.1	1	2.3	5	1.9
	언어	5	3.4	3	4.1	-	-	8	3.0
	문학	4	2.7	9	12.2	4	9.1	17	6.4
	민속	23	15.5	2	2.7	1	2.3	26	9.8
	역사	24	16.2	9	12.2	20	45.5	53	19.9
	계	57	38.5	26	35.1	26	59.1	109	41.0
사회과학	일반	4	2.7	7	9.5	2	4.5	13	4.9
	사회	15	10.1	28	37.8	2	4.5	45	16.9
	지리	10	6.8	-	-	2	4.5	12	4.5
	산업, 관광, 개발	10	6.8	6	8.1	9	20.5	25	9.4
	계	39	26.4	41	55.4	15	34.1	95	35.7
자연과학	일반	12	8.1	1	-	2	4.5	15	5.6
	농업	7	4.7	1	1.4	-	-	8	3.0
	동식물	10	6.8	3	4.1	1	2.3	14	5.3
	해양	16	10.8	1	1.4	-	-	17	6.4
	지질	7	4.7	1	1.4	-	-	8	3.0
	계	52	35.1	7	9.5	3	6.8	62	23.3
합계		148	100.0	74	100.0	44	100.0	266	100.0

〈표 1〉에서 보듯이 『제주도 연구』에는 인문학 41%, 사회과학 35.7%, 자연과학 23.3%의 분포로, 세 분야의 논문이 비교적 골고루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매우 크다. 첫 시기에는 인문학 38.5%, 사회과학 26.4%인데 비해 자연과학이 35.1%를 차지하여, 사회과학자들보다 오히려 자연과학자들의 참여가 활발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활발하게 자신들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했음을 보여준다. 주

목할 것은 자연과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자신들의 새로운 실험 관찰 결과를 발표하기 보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 설명 가능한 형태로 재정리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새로운 연구 성과를 업데이트한 것은 아니지만, 인문사회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소통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호 교류의 영역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시기로 오면, 인문학 35.1%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사회과학이 55.4%를 차지하면서 대폭 증가한 반면, 자연과학은 9.5%로 크게 줄어들었고, 세 번째 시기가 되면 인문학이 59.1%로 크게 증가하고, 사회과학이 34.1%로 줄어든 반면, 자연과학은 단 3편으로 6.4%에 그쳤다는 점이다. 자연과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 실제로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표하는 자연과학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사회과학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기에서 역사 분야가 45%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과학자들이 제출한 논문임을 감안한다면, 2000년대 이후 제주학회는 사회과학자들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초기에 인문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던 분위기가 점차 사회과학자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바뀐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제주학회가 제주도 등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공동 연구를 실시할 때, 대부분 인문 사회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자연과학자들은 거의 소외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학회의 특집 주제가 학문적인 내용 보다는 현실 참여적, 또는 현실과 밀착된 방향으로 흐르고, 임원진 중에 자연과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이 학술지의 논문 발표 비중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탐라문화 연구소의 학술지 『탐라문화』는 지난 25년 동안 모두 32호가 간행되었다. 1982년에 창간호를 내기 시작해서 해마다 1권씩 간행되다가, 2004년도 24호부터는 1년에 두 차례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탐라문화』에는 세 시기에 걸쳐 모두 28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인문학 분야가 193편으로 68.9%를 차지하여 2/3을 넘어섰고, 사회과학은 82편으로 29.3%인 반면, 자연과학은 불과 5편으로 1.8%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자연과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의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전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만의 연구소가 되었다. 이는 제주학회의 『제주도연구』가 인문·사회·자연과학자들의 상호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표 1〉 『탐라문화』 수록 논문의 경향 변화

분류	논문	1-10집		11-20집		21-32집		합계	
			%		%		%		%
인문학	일반	1	1.2	5	5.2	4	4.1	10	3.6
	언어	7	8.2	12	12.4	14	14.3	33	11.8
	문학	8	9.4	15	15.5	11	11.2	34	12.1
	민속	11	12.9	11	11.3	20	20.4	42	15.0
	역사	22	25.9	25	25.8	27	27.6	74	26.4
	계	49	57.6	68	70.1	76	77.6	193	68.9
사회과학	일반	11	12.9	6	6.2	12	12.2	29	10.4
	사회	10	11.8	12	12.4	7	7.1	29	10.4
	지리	-		5	5.2	3	3.1	8	2.9
	산업, 관광,개발	12	14.1	4	4.1	-	-	16	5.7
	계	33	38.8	27	27.8	22	22.4	82	29.3
자연과학	3	3.5	2	2.1	-	-	5	1.8	
합계	85	99.9	97	100.0	98	100.0	280	100.0	

또한 사회과학자들의 논문 발표도 첫 시기에는 38.8%를 차지하다가, 두 번째 시기에는 27.8%로, 세 번째 시기에는 22.4%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인문학 분야는 첫 시기에 57.6%에서 두 번째 시기에 70.1%로 늘어나고, 세 번째 시기가 되면 77.6%를 차지하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탐라문화』가 인문학 중심의 학술지로 변화해 왔음을 말해준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언어, 문학, 민속, 역사 분야가 골고루 증가한 반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산업·관광·개발 분야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사회과학 분야의 참여가 크게 위축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대학 내의 연구소 분포와도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과학 연구소, 법과정책연구소, 관광과 경영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소가 생겨나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상당수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탐라문화 연구소 활동이 줄어들고, 연구 논문 투고 경향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문학 분야의 언어, 문학, 민속, 역사 분야의 논문들이 골고루 증가했으며, 『제주도 연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논문이 실렸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탐라문화』가 제주 문화 연구에 중심 역할을 해 왔으며,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장으로 기능해왔으므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주학 연구가 개별 분야 연구 성과의 집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 분야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여러 학문 분야가 상호 침투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문학 분야로 지나친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 4. 『탐라문화』의 활성화 방향

위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제주도 연구』와 『탐라문화』는 제주학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문 사회 자연과학자들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면서 제주학의 수준을 높여가던 『제주도 연구』가 발간이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 제주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탐라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점을 짚어 보려고 한다.

우선 연구 주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그 동안 연구 주제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속학 분야였다. 특히 무속 연구는 특화된 분야였다. 그 다음이 조선시대 제주 역사에 관련된 연구였다. 그에 비하면 제주사회의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가 늘어나면서 논문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줄어든 것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주도연구』와 비교해 볼 때 특히 두드러진 특징이 자연과학 분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자연과학 분야와의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주도 연구』가 보여준 최대의 강점은 제주도의 동 식물, 기후, 농업, 축산업 분야 등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면서 자연과학자들이 인문·사회과학자들과 소통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거의 사라졌고, 폭이 좁아지면서 급기야는 학술지 발간이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자연과학자들과의 소통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만,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인문학 분야 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사회과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소가 학술대회의 연구 주제를 의도적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한 방향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제주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주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만나는 장이다. 따라서 『탐라문화』는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이 제각기 자신이 전공 분야에서 배운 이론과 방법론을 구사해서 제주의 사회 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제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연구자들이 제출한 연구 성과를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제주를 주제로 하는 연구 성과를 상호 비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어느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제주 지역 연구를 매개로 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 학문 분야 내의 상호 경쟁과 협력 관계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좀 더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흡수해 들여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탐라문화』가 서로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이 소통하는 학문공동체를 만드는 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학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가장 신고 싶은 학술지가 되고, 동시에 제주학 연구의 현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탐라문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보면 『탐라문화』는 제주학, 즉 제주도의 인문 사회 과학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싶고, 꼭 필요로 하는 연구지가 되도록 지면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 연구자는 제주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포괄하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제주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과, 나아가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제주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일본에서는 제주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오래 동안 필드 작업을 통해 성과를 축적한 연구자들이 상당수 있으며,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평소 제주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었던 학자들까지 대거 참여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등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제주를 테마로 연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탐라문화』는 이들에게 연구 발표의 장을 제공하면서 제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탐라문화』는 전국, 세계 각지에서 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나는 공동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학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연구목록 작성과 서평 작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적극 제안한다.

현재 제주학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잡지가 전혀 없다. 그 동안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은 『탐라문화』의 창간호부터 4호까지(1982년부터 1985년까지) 실렸던 “해방후 제주연구개관”이 유일하다. 이것은 어문학·민속분야, 역사분야, 사회과학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1970년대까지의 연구 성과를 개관하는 것이었다. 물론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시까지 어떤 종류의 연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종류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탐라문화』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1) 탐라문화연구소가 주도하여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총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탐라문화』를 중심으로 한 제주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한 차례 이루어졌다. 창간호(1982년)부터 4호(1985년)까지 “해방후 제주연구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어문학·민속 분야’, ‘역사·고고분야’, ‘사회과학분야의 정리가 있었지만<sup>9)</sup>, 그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구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그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학 분야의 연구를 새로 시작하려는 학생 및 연구자들로서는 그 이후의 연구 성과를 개별적으로 찾아내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해방 이후 2007년까지 출간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그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심포지엄 역시 1984년에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었다.<sup>10)</sup>

하지만 앞으로의 심포지엄에서는 단지 각 분야별 연구 성과 정리만이 아니라, 제주학 전반을 놓고 검토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앞으로는 해마다 그 전해 일 년 동안 출간된 연구 성과를 총 정리하고 그 목록을 수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작업을 개인에게 맡겨둘 때는

9) 『탐라문화 창간호(1982), 제2호(1983), 제3호(1984), 제4호(1985).

10) 당시 “제주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역사학적 측면, 고고학적 측면, 민속학적 측면, 행정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발표가 있었다. 『탐라문화』 제3호, 탐라문화연구소, 1984.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많은 연구 성과가 상호 정보 교환 없이 사장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일부 연구 성과만을 검토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탐라문화 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 목록을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항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서평 파트를 신설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탐라문화』에는 논문과 자료 소개 및 해제가 주로 실렸다. 반면 서평은 전혀 실리지 않았다. 제주학 연구 분야에서의 서평은 『제주도 연구』의 경우도 제16집부터 제20집까지, 1999년부터 2001년까지만 실렸을 뿐, 그 전에는 물론, 당시 서평이 실렸던 것은 기본 방침이 정해져서가 아니라, 당시 편집위원회가 서평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서평란을 신설한 것이고,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는 아니었다. 때문에 편집진이 바뀌자 2002년도부터는 다시 사라졌다.

서평은 연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술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서평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서평이 연구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 방식으로 보다는, 오히려 연구자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서평에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논의를 하면 그것을 곧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서평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논문을 다시 쓰는 일은 드물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제주 지역사회가 면대면 관계(face-to-face relationship)가 중심인 좁은 지역 사회라는 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제주 지역에서는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계에서의 문화 비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호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 풍토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라도 서평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주학 분야에서 그러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비평은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서 문제가 되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칭찬으로 흐르고 있다. 이를 흔히 주례사 비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서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서평은 신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되, 서평을 통해서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현 단계의 연구 수준과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작업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편집위원 중에 서평을 담당하는 위원이 있고, 실무자가 배치되어 서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출간된 제주학 관련 신간을 모으고, 이 가운데 서평을 할 만한 책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에게 서평을 의뢰해야 한다.

4) 학술지 『탐라문화』는 물론 연구소가 강행하는 주요 저술과 자료집을 유가지로 전환해서 일반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오기나와 등 여러 지역의 연구소들이 일단 회원에게 배포한 후에는, 유가지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학의 동향을 대외로 알아리는 방식이고, 일반 독자의 확보방안이기도 하다.

5) 마지막으로 제주 학술 저작상을 제안한다. 해마다 지난 1년 동안 출간된 연구 저작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연구 저작을 선정하여 상을 주고, 그 저작에 대한 2-3명의 서평을 싣고, 동시에 연구자의 “나의 책을 말한다” 형식의 인터뷰를 싣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동안 제주학회와 제주일보가 공공 제정한 제주학술상이 수여되고 있지만,<sup>11)</sup>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체계를 갖추고 저작을

선정한다면, 연구자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학술저작의 대상으로 제주도 연구와 관련 있는 국내·외 학자를 포괄해야 하며, 수상분야도 전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본격적인 기금 적립 방안 등의 운영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맺는말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적인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라 지역사회가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성과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자들의 기초 연구가 풍부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주학 연구는 어느 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없다. 또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연구의 단순한 집합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여러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모여들면서, 동시에 이것이 한데 녹아들면서 새로운 차원의 연구로 발전해가야만 가

11) 제주학술상은 제주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연구자를 매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제주학을 성장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본사와 사단법인 제주학회가 공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제정 실시하고 있다. 제1회 제주학 학술상 수상자는 '제주도 목장사'를 저술한 남도영 동국대 명예교수가, 제2회 수상자는 '제주농촌경제의 변화'를 저술한 이기욱 전 제주대 교수가, 제3회 수상자는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를 저술한 강정희 한남대교수가, 제4회 수상자는 '제주현대문학사'를 저술한 김병택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제주일보 2006년 09월 30일)

능하다. 제주라는 지역을 연구의 소재로 삼았다고 모두 제주학 연구는 아니다. 각 분과 학문별로 제각기 이루어지는 성과는 그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제주학의 성과가 되지는 못한다. 특히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성과가 충분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제주 지역 연구의 성과들을 충분히 흡수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연구도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과 학문들은 제주학의 틀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주학회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제주도 연구』가 재간행되면서, 학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인문·사회·자연과학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는 한편,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학 연구자들이 조직적으로 연구 테마를 설정하고 협력하고, 연구 총서와 자료총서를 발간하는 연구 센터가 되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학회와 연구소가 각기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비로소 제주학이 분과 학문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즉 제주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재결합하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탐라문화 연구소의 학술지 『탐라문화』는 제주대학교 일부 교수들의 소모임에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발간하는 책자의 수준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넓혀 나가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인문·사회·자연과학자들이 상호 소통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국의 지역 연구의 모범적인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이 탐라문화 연구소가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다.

## 참고문헌

- 강원사회연구회 엮음, 『강원문화의 이해』, 한울, 2005.
- 김병철,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강원개발연구원, 2000.
- 김석준, 『지역학으로서 부산학』, 『부산학총서』 1,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3.
- 김영돈 외, 『해방후 제주연구개관-어문학·민속분야』, 『탐라문화』 창간호, 1982.
- 김종업 외, 『해방후 제주연구개관-역사·고고분야』, 『탐라문화』 제2호, 1983.
- 신행철 외, 『해방후 제주연구개관-사회과학분야』, 『탐라문화』 제4호, 1985.
- 신행철, 『제주사회연구의 전개와 과제』, 『濟州島研究』 제4집, 제주도연구회, 1987.
-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도서출판 한울, 1995.
- 안두순,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 안두순 편, 『서울학 연구 서설』,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 유철인, 『지역연구와 제주학』,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 이광규,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사회학적 측면』, 『탐라문화』 제3집, 1984.
- 장주근,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의 濟州島』, 『濟州島研究』 창간호, 제주도연구회, 1984.
- 전경수, 『濟州學: 왜 어떻게 할 것인가?』, 『濟州島研究』 제14집, 제주도연구회, 1997.



Abstract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Jejuology as a Model  
of the Regional Science

: On Revitalization of the Journal "Tamla Munwha"

Cho, Sung-Youn\*

In this paper, I want to check the present status and the future of the area studies that research on localities is based on the uniqueness of localities. Especially I want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the Jejuology as a regional science besides area studies. And I choose the institutional approach rather than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the purpose of my research.

I examine the activities of the research center,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耽羅文化研究所) in Jeju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relation to the other research organizations, for example, Society for Jeju Studies(濟州學會). In addition, I reviewed historical tendency and the role of the academic Journal "Tamla Munwha" and proposed some points to be duly considered for the enhance the level of the academic Journal.

The most of the papers in the magazine until now was concentrated on the Humanities(shamanism, the local history, language study).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fields from Humanities to the Social Science and the Natural Science.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buildup a book review.

---

\* Professor, Ch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Jejuology, regional science,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academic Journal, book review

**교신 : 조성윤** 690-756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E-mail : chomin@cheju.ac.kr 전화 : 064-754-2786)

최초 투고일 2008. 7. 10

최종 접수일 2008. 8. 16

K C I